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4년 겨울 | 8호

특집 등잔 | **박물관탐방** 등잔박물관을 찾아서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화가가 사는 집

유물사랑 차(茶)가 있는 풍경 | **전시실 산책** 그 영원한 微笑 | **기증유물** 유물 기증, 그 후

답사를 다녀와서 洛陽에서 鄭州까지 | **강의를 들으며** 景福宮과의 因緣

안녕 경복궁 용산에서 다시 만나요

학술발표요지 공주 옥룡동 고분출토 개오지 장식품

한국박물관회는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신 석 정 (1907~1974)

저 재를 넘어가는 저녁 해의 엷은 광선들이 섭섭해합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 새끼들이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윽고 하늘이 능금처럼 붉어질 때
그 새 새끼들은 어둠과 함께 돌아온다 합니다.

언덕에서는 우리의 어린 양들이 낡은 녹색 침대에 누워서
남은 햇볕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고
조용한 호수 위에는 인제야 저녁 안개가 자욱이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늙은 산의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 가지 않고
머언 숲에서는 밤이 끌고 오는 그 검은 치맛자락이
발길에 스치는 발자국 소리도 들려 오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기인 둑을 거쳐서 들려 오던 물결 소리도 차츰차츰 멀어갑니다.
그것은 늦은 가을부터 우리 전원을 방문하던 까마귀들이
바람을 데리고 멀리 가버린 까닭이겠습니다.
시방 어머니의 등에서는 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자장가를 듣고 싶어하는 애기의 잠덧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
인제야 저 숲 너머 하늘에 작은 별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燈 盞

– 빛을 담는 그릇

백자등잔
(무령왕릉 출토,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겨울의 추위와 긴 어둠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땅에 서는 늘 맞서야 하는 난관이었고 넘어야 할 고비였다. 밖에는 매운 바람이 불고 어둠이 몰아칠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하고 환한 불에 의지하는 것이었고, 그걸 담는 그릇인 등잔은 중요한 필수품이었다. 등잔이란 좁게는 기름을 담아 불을 켜던 그릇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촛대와 등잔걸이, 휴대용 등잔 같은 등촉기구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등잔의 원형은 선사시대의 집터에서 발견되는 화덕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은 삼국시대의 등잔들로 고분 안에서 출토되었다. 기마형 인물토기가 나와 유명한 경주 금령총에서는 특이한 등잔 모양의 토기도 함께 있었는데 多燈式 등잔으로 추정된다. 다등식이란 여러 개의 등잔이 하나의 둥근 원통 관에 연결되어 여러 곳 모두 한 번에 불을 밝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일컫는다. 마치 샹들리에 같은 효과를 내도록 되어 있다. 원통관 옆에는 귀걸이와 비슷한 달개 장식이 있고 높은 받침대가 있어 의식용 유물임을 짐작케 한다. 백제 武寧王陵에서 나온 백자 등잔은 타고 남은 심지의 흔적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왕과 왕비의 관이 있던 玄室 벽에 불꽃 모양의 감실이 있고 그 앞에 놓여 있던 등잔이다. 6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진 백자여서 관심을 끌었다. 모두 저승 가는 어두운 길을 환히 밝

청동초심지 가위
(안압지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혀주던 등잔이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던 등기구로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청동 초심지 자르는 가위가 있다. 손잡이에 당초무늬를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같은 모양의 가위가 일본의 正倉院에서도 발견되어 일찍이 수출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金銅嵌玉燭臺 역시 통일 신라 시대의 세련된 공예 솜씨를 잘 드러내는 유물이다.

고려 시대에는 燃燈會를 비롯한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서 며칠동안 밤낮으로 불을 밝히고 발원하는 일이 널리 행해졌고 따라서 등잔을 비롯한 등기구가 매우 발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는 청자로 된 등잔과 웅장한 멋을 풍기는 청동 촛대가 남아 있다.

유기등경
(등잔박물관 소장)

고려의 찬란한 불교문화가 만들어 낸 의식용 燈器는 조선으로 이어지며 점차 퇴보하였다. 대신 간편하고 실용적인 등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유물로는 백자 등잔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도가 높으면서 화재에 비교적 안전한 유기 등잔이나 철제 등잔은 주로 안방에서 사용했다. 이 밖에 사찰에서는 대리석으로 만든 커다란 옥 등잔을 밝히기도 했다. 등잔은 심지를 그릇 가에 대어서 불을 켰기 때문에 대개 작은 종지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연료로는 참기름, 콩기름, 피마자유 같은 식물성과 魚油, 굳기름 등을 썼다. 그러나 조선 고종시대에 석유가 들어오면서 등잔의 모양은 뚜껑이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석유는 불이 닿으면 바로 연소가 되므로 뚜껑을 겸한 심지가 필요했다.

등잔은 빛을 담는 그릇에 대한 일반적인 통칭이다. 그러나 등잔이 놓인 위치나 외부 장식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등촉 기구가 있다. 등잔을 얹어서 사용하는 燈檠, 들고 다니는 提燈, 실내에 놓는 座燈, 그리고 초를 꽂는 촛대 모두 등잔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등촉 기구들이다.

등경은 등잔을 적당한 높이에 얹도록 한 걸이로 널리 이용되었던 서민층의 실내 조명기구이다. 보통 서너 개의 걸이용 단이 있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아래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기름 받이를 달아서 심지에서 떨어지는 불순물을 받도록 하였다. 크기는 좌식 생활에 맞게 40-50cm 정도였으며 주로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밑판은 성냥이나 부젓가락을 놓아두었고 때로는 재떨이로 사용하였으며 또는 작은 서랍을 만들어 등잔을 켜는데 필요한 물건을 넣기도 하였다.

목제등가
(등잔박물관 소장)

등잔불을 간접적으로 비추게 하는 기구가 좌등이다. 지금의 스탠드처럼 가구의 기능을 겸했다. 틀은 나무나 철로 만들고 한 쪽에 여닫이문을 달아서 안에는 등잔이나 촛대를 놓도록 했다. 옆면의 창에는 파란 색, 황색의 얇은 비단이나 종이를 발라 방 한켠에 놓으면 불빛이 은은하게 내비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양은 사각, 육각, 팔각형으로 되어있고 아래쪽에는 서랍이 있어 부싯돌, 초 등을 넣어 두었다. 좌등은 주로 상류층에서 이용했는데, 그 양식이 화려하여 장식적인 요소가 뛰어나다.

조족등
(등잔박물관소장)

등잔을 밖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을 제등이라고 한다. 안에 초를 넣었다고 해서 흔히 초롱이라고도 불린다. 제등은 바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집을 만들어 씌우는데 틀은 철사나 대나무, 나뭇대 등으로 짜고 윗부분은 불기가 밖으로 빠지도록 둥글게 구멍을 냈다. 집은 흰 종이나 기름종이로 겉면을 둘러 발랐다. 특히 둥글게 엮어서 발 앞을 비추게 만든 것은 照足燈이라 하여 순라꾼이 야경을 돌 때 사용했다. 모양이 둥근 박과 같다 해서 박등, 도적을 잡을 때 사용한다 하여 도적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등 안에는 초를 꽂는 회전용 돌쩌귀가 있어서 등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촛불이

좌등
(등잔박물관소장)

꺼지지 않도록 했다.

처마 밑이나 외부 기둥에 매다는 등은 卦燈이라고 한다. 집 밖을 밝히는 등으로 제등보다는 다소 크다. 그 중에서도 오색의 유리구슬을 꿰어 육각의 형태로 만든 料絲燈은 매우 화려한 형태로 궁중에서 사용했다. 또 들보에 달아놓는 懸燈이 있고 부엌등이 있다. 부엌등에는 질그릇으로 만든 것도 있다.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고 한 쪽면만 둥글게 구멍을 내어 바람을 맞지 않도록 했고 오지 안에 사기등잔을 넣어 불을 켰다. 위에는 좁게 연기 구멍을 내고 매달거나 들고 다니기 쉽게 끈을 달았다.

촛대는 촉대라고도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초가 희귀하여 사회계층에 따라 엄격한 제한이 있었고, 초 생산량이 수요에 못 미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상류층에서만 사용되었다. 의식용과 일상생활용으로 구분하였고 의식용은 간결한데 비해 생활용은 한 쪽 바람을 막도록 된 불후리 부분을 박쥐나 원, 나비 등의 모양으로 화려하게 만들고 장식하였다.

나비광배부유기촛대
(등잔박물관 소장)

방 안을 비추던 등잔은 이제 사라졌고 불은 더 이상 그릇에 담지 않는다. 그릇에 담겨지지 않는 불을 예전처럼 가까이 느껴볼 수는 없다. 다만 등잔을 통해 살아나는 옛 사람들의 불을, 그리고 그 불과 관련된 생활을 짐작해 볼 뿐이다. M절

부엌등

등잔을 마주하고

현대는 밤이 없는 시대이다. 한치 앞도 분간 할 수 없는 칠흑같은 어둠은 옛이야기가 되었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은 깊은 산속에서나 느껴볼 수 있게 되었다. 어둠을 밝히던 작은 등잔 앞에서 펼쳐지던 그리움, 기다림, 외로움 등 모든 은근한 정서는 화려한 조명 앞에서 설 곳이 없어졌다.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된 등잔은 조선시대의 목등잔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 장인이 만들었을 것 같은 화려한 장식의 작품부터 일반서민들이 대충 깎아 만든 듯 투박한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솜씨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집집마다 직접 만들어 썼음직한, 똑같은 모양 하나 없이 손질한 이의 개성을 유감없이 표현하고 있다. 멀리 딸을 시집보내는 아버지가 딸을 위해 능숙한 솜씨는 아니지만 제법 요리조리 모양을 낸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을 담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평생보지 못할 자식에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서로 통하는 마음을 정성껏 담았을 것이다. 훗날 자식은 아버지가 손수 깎은 등잔 아래서 아버지를 그리며 눈물 흘렸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온다. 댓가지를 쭉쭉 갈라 기둥을 만들고 나무하나 박아 끈으로 묶어 만든 댓가지기둥 등가는 만든 이의 소박한 아이디어와 감각이 돋보인다. 주변에서 흔한 재료를 그대로 살려서 다듬어 만든 질박함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귀학형동촛대는 거북의 등을 밟고 서 있는 학의 시원하게 뻗은 다리와 긴 목, 그 부리 위에 촛대가 얹혀 있다. 밑에서 궁금하다는 듯이 목을 빼고 올려다보는 거북의 모습이 해학적이다. 벌어진 입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정겹게 보이고 욕심없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 같다. 조선시대 철제구리은 입사촛대는 기둥에 새긴 소나

댓가지기둥 목제등가
(등잔박물관 소장)

무, 구름, 사슴 등의 십장생이 한 폭의 그림이다. 초가 귀했던 시절 부유한 양반집안을 밝힌 것으로 정성이 많이 들어간 빼어난 장인의 솜씨다. 주인의 기호를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어 예술적으로 높은 세련미를 보여준다. 박쥐모양의 불후리에 새긴 시 한수가 운치를 더한다.

한 자 남짓 쇠를 곱게 단장해
공들여 녹여 만드니 하나하나 신묘하구나
세월이 과객처럼 빨리 지나감 슬퍼하며
너와 함께 긴 밤을 지샌 사람 누구이던가
粧來金鐵尺餘身
冶鑄奇功箇箇神
自惜光陰如過客
憑渠欲問夜遊人

철제구리은입사촛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화려하지는 않지만 죽절문의 등잔은 꼿꼿한 선비의 기상을 말해주는 듯하다. 청운의 꿈을 안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을 벗 삼아 많은 밤을 지새우며 글을 읽었을 것이다. 혹은 멀리 귀양살이 떠나와 허름한 오두막집에 오두마니 앉아 안타까운 기다림과 외로움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기도 했다. 화촉은 빛깔들인 밀초에 목단, 나비 등을 조각하였다. 밀초는 매우 귀한 물품으로 조선초기에는 관청의 엄격한 통제 하에 사적 매매를 금하였으나 혼례 때에만 서민들도 사용하게 했다. 하루해 저물어 첫날밤을 지내는 신혼방문에 비친 그림자는 등잔불의 작은 움직임에도 춤을 추듯 너울거린다.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신랑, 신부를 창호지 뚫어가며 엿보는 사람들 마음도 흔들리는 등잔불만큼이나 설렌다. 그래서 화촉은 일반적으로 혼례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화촉을 밝힌다'고 하면 결혼식을 의미한다. 절집에서는 삼십여 년 전만 해도 법당에 옥등이 있었다. 우유빛 대리석을 큼직한 바리때처럼 다듬어 백등잔이라고도 부른다. 불을 켜면 등잔 전체가 맑은 기운의 빛이 투영되어 달덩이처럼 보인다. 은은하고 유현한 멋이 가득 차 수행 처소다운 기운이 감돌았다.

뿐만 아니라 옛 그림에도 재미있는 것이 있다. 혜원 신윤복의 〈月下情人圖〉에는 한밤중 남녀가 몰래 만나는 장면으로 남정네가 제등을 들고 미인을 조심스레 인도하고 있는 풍경이 보인다. 컴컴한 밤 제등을 앞세우고 몰래하는 사랑놀음의 아슬함이 보는 이의 입가에 절로 웃음을 머금게 한다.

옛날부터 등잔은 인간에게 그리움과 꿈과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안겨준다. 그래서 자주 시인 묵객의 입에 오르내렸다.

최치원은 〈秋夜雨中〉 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을

窓外三更雨 등앞에 앉아 있는 이 마음
燈前萬里心 멀리 고향 생각에 잠기네

라고 맺고 있다. 어느 가을 비오는 밤 등잔 앞에서 고국을 떠나 만리타국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을 저리게 느끼는 주인공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燈下看書〉라는 이율곡의 시에서도

初回海外遊山夢 선계에 노닐던 꿈 처음 깨어
一盞靑燈照古書 외로운 등불아래 고서를 읽는다네

라고 표현하였다. 등잔을 마주하여 잠시도 책을 놓지 않고 학문에 전념한 대학자의 한 면을 보는 듯하다.

추억 속의 등잔은 문을 여닫을 때나 나직한 입김에도 하늘거린다. 할머니의 무릎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졸린 눈 부비며 듣던 구수한 옛이야기. 항상 "옛날 옛적에..." 로 시작하는 이야기지만 산 속에서 호랑이도 만나고, 도깨비나라도 가며 가물가물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제는 그리움으로 마음의 고향으로 다가온다. 긴 겨울밤 등잔불 아래서 여럿이 모여 앉아 바느질하거나, 새끼를 꼬면서 도란도란 나누었을 이야기 속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녹아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두루 사용되어 왔던 등잔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꿈을 담고 있다. 사물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옛사람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고 하였다.

귀학형동촛대
(등잔박물관 소장)

등잔 속에 담긴 이야기처럼 오래동안 마음에 감춰 놓았던 따뜻한 기억들을 떠올려 본다. 기선

등잔 박물관을 다녀와서...

"어린 시절, 하루 종일 뛰어 놀다 보면 자리에 눕기 무섭게 잠이 들곤 했어요. 어쩌다 설핏 선잠을 깨어보면 희미한 불빛 아래 바느질하는 어머니가 보였는데, 등잔불에 하늘하늘 비치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고와 보였지요." 金東輝 관장의 등잔 사랑은 이렇게 뿌리가 깊다. 40여 년간 틈틈이 모아 온 자료들로 1997년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등잔박물관을 세웠다. 수원 화성 성곽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만든 박물관의 겉모습이 마음을 끌어당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기까지의 등잔 및 다양한 민속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선조들의 일상생활과 그토록 밀접했던 등잔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춰버린 아련한 추억의 등잔들이 다시 불을 밝힌 셈이다.

등잔박물관 전경

전시실은 1, 2층과 지하층으로 되어있다. 1층은 '생활 속의 등잔' 이라는 테마로 안방, 사랑방, 부엌, 찬방을 민속품과 함께 각각 꾸며 놓아 당시 삶 속의 등잔 사용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관람자 스스로가 전시물과 직접 눈을 맞추고 옛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한다. 2층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아름다움 속의 등잔' 과 '역사 속의 등잔' 이란 주제로 되어 있다. 아름다움 속의 등잔에서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작품과 투박한 서민들의 작품을 서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서민들이 직접 만든 목제 등잔은 소박한 모습에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듯하여 더욱 정이 간다. 역사 속의 등잔은 삼국시대 토기, 고려의 청동제, 그리고 조선시대의 목제, 철제등잔 등을 전시하여 시대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제등과 좌등까지 아름답고 실용적인 등잔을 만나게 된다. 관람의 마지막 동선은 화촉과 혼례에 사용되어진 원삼과 족두리, 목기러기의 전시로 마감된다. 화촉은 화려한 빛깔과 문양으로 만들어진 귀한 고가의 밀초로써 혼례 때 주로 사용했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두 개의 화촉은 조

선 후기 것으로 쓰다 남은 밀초이기에 그 시대 사람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본다.

전시유물에는 등잔 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엿볼 수 있는 그림이나 글씨 그리고 사진들이 함께 전시되어 감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전시관 사이사이에 칸막이 공간을 두어 한숨 고르며 편하고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지하층인 尙友堂은 무대 공연과 전시기획 세미나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다. 현재 '인간가족전'이란 주제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그 외 박물관 뜰은 야외전시장으로 석등을 위시하여 문인석, 동자석, 물확, 연자매 등 여러 석물과 민속품들로 조성되었다. 잠시 피곤한 다리를 쉬어 갈 수 있는 아담한 정자와 정성껏 가꾸어진 정원, 이와 어우러진 야산의 우거진 숲이 하나의 그림으로 찾는 이의 마음에 편한 쉼터가 되어준다.

화촉
(등잔박물관 소장)

등잔 박물관은 '보고 생각하는 박물관', '항상 열린 여러분의 박물관'을 지향한다. 유물 전시에 별다른 설명문을 붙이지 않았는데 이는 전시물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들을 평가하고 감상하기를 유도했다고 한다. 등잔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내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 같다. 조상들이 쓰던 물건 하나하나에도 인격을 부여하면서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유물들의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관장 부부와 아들 金炯九 선생 부부 등 가족 모두가 한국박물관회 회원이다. 등잔불처럼 따뜻한 가족들의 등잔사랑은 박물관의 탄생을 가져왔다. 한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는 부자간의 동료의식은 격의 없이 훈훈하게 나누는 대화에서도 잘 엿볼 수 있었다. 마치 등경 위의 등잔 같은 모습이라고 할까? 그 자리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등잔이 그분들의 애정에 오히려 고마워 하고 있는 듯 했다. 따뜻한 환대와 함께 米壽를 바라보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한 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가물거리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등잔불이 빛을 뿜어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다. 愛

화가가 사는 집

李 用 休 (1708-1782)
혜환(惠豈).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

하늘이 사물을 탄생시킬 때에는 그 형상 속에 이치를 깃들게 한다. 그리고 성인으로 하여금 하늘을 대신하여 해야 할 말을 하여, 교화를 널리 펴게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經書다. 그러나 말이란 반드시 문자의 힘을 빌어야만 전달되기에, 하늘이 蒼頡에게 문자를 만들게 하였다. 문자는 처음에는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기에 그 쓰임에 한계가 있는지라, 또 史皇을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림과 문자가 서로 어울리자 비로소 뜻하는 바를 완벽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넓은 세상에 숱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문자는 늘 제자리를 지킨 반면, 그림은 나타나기도 하고 깊이 숨기도 하여 〈豳風圖〉와 〈王會圖〉 이래로 유명한 그림이 얼마 없다. 간간이 재능과 기상이 출중한 사람이 나타나 넘쳐흐르는 재주로 花卉나 翎毛를 그렸는데, 그 빼어난 솜씨는 조물주를 빼닮아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었다. 따라서 그림 그리는 것이 작은 일이라 할 수 없다.

金君 士能(金弘道)은 스승도 없이 터득한 지혜로 새로운 의취를 창출하여, 그의 붓이 이르는 곳에는 정신도 함께 살아있다. 그가 그린 푸른 머리, 금빛 터럭이며 붉은 줄 흰 가닥은 정교하면서도 신묘하여 옛사람이 그의 솜씨를 보지 못해 한스럽다 할 만도 하였다. 따라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중하여 가볍게 그림을 그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인품이 대단히 높고 고아하여 운치 있는 선비의 풍모를 지녔기 때문에, 자기의 정신적 고민과 예술적 솜씨를 이용하여 남들과 교제하는 데 쓸 그림으로 제공하여 화장대나 부엌에서 두고 볼거리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무릇 글씨란 사람에 비유하면 姓名이요 그림이란 얼굴 모양이다. 어떤 사람의 성명만을 알고 그의 얼굴 모양을 모른다면 비록 종일토록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알아보지 못할 터이니 그것이 될 말인가?

아! 그림과 글씨는 발생이 같을 뿐 아니라 형체 또한 비슷한데도 세상에서는 글씨는 높이면서 그림은 낮추어본다. 심지어는 畵工이나 畵史라고 불러 욕보이기까지 한다. 그 까닭이 대체 무엇일까?

김군이 거처하는 집에 對右菴이라는 편액을 걸었는데 '왼쪽에는 그림을 두고 오른쪽에는 글씨를 둔다'는 옛사람의 뜻을 취한 이름이다. 그림과 글씨가 떨어져서 외롭게 제 길을 간 지가 오래인데, 지금 다시 합해졌으니 서법가와 화가가 서로 축하해 마지않을 일이다.

원래 제목은 對右菴記이다. 이용휴가 자신보다 약 한 세대 아래인 당대의 화가 김홍도의 집에 들렀다가 써준 記文이다. 김홍도는 글씨보다 그림을 더 높이 여긴다는 뜻의 左圖右書라는 말에서 집 이름을 따 왔다. 대우암이란 오른쪽의 글씨를 마주하고 사는 왼쪽의 사람 곧 화가가 사는 집을 뜻한다.

이 글을 통해 김홍도가 솜씨는 물론 예술 정신도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글씨와 그림이 하나된 조화로운 예술세계를 이용휴는 알아주고 아낌없이 칭찬하였다.

원문은 지면관계로 싣지 못합니다.

〈번역 : 편집실〉

차(茶)가 있는 풍경

- 沈師正의 〈松下問月〉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리워지는 시절이다. 비록 새 차 나는 봄철 穀雨 즈음은 아닐지라도 소슬한 시절 차 한 모금의 열기와 훈훈함은 삶 자체를 넉넉하고 여유롭게 한다. 홀로 책을 읽다가 잠깐 멈춰 눈도 쉴 겸 조금 전 읽은 내용을 되새기며, 아니면 이미 단풍 때를 지나 凋落으로 視界가 넓어진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도 괜찮다. 마음 통하는 벗과 더불어 마시는 차는 향기로움을 더한다. 酒席처럼 큰 소리 없이 도란도란 잔잔한 대화가 차향[茶香]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은 그야말로 思量과 揀擇의 世事를 벗어나 이 순간만은 범부도 世外高士가 된다.

금년 가을 제5회 광주 비엔날레는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一塵一滴]' 이었다. 이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산수화' (9.23-11.21)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먼지가 쌓이면 그것이 언덕이며, 물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니 그대로 山水 아닌가. 조선시대 산수화의 큰 흐름을 살피고, 산수 속에서 전개된 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선조들의 삶 가운데 특히 선비들이 자연과 하나 된 그 여유로운 장면들이 마냥 부러움을 자아낸다.

2002년 봄 제4회 광주 비엔날레는 '멈춤[停止]' 이였다. 그 때 無等山麓에 위치한 毅齋 미술관에선 각종 차 관계 그림과 茶具 전시회를 열었다. 과거 것만이 아닌 현대 것도 함께 모은 특별전시로 '차향[茶香] 속에 어린 삶과 藝術' 이라는 주제였다. 차가 있는 공간은 우선은 기다림, 멈춤을 전제로 하기에 썩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옛 그림에 등장한 인물의 觀照하는 모습은 때에 따라 다르다. 이 가운데 쉽게 만나게 되는 것은 봄날 새롭게 돋아난 산야의 푸름을 밟는 踏靑, 삼복염천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 濯足, 폭포를 바라보며 자연의 굉음에 더위를 씻는 觀爆,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의 부담 없이 하는 閒談, 蘇軾(1036-1101)의 〈赤壁賦〉에 연원을 둔 船遊, 한 겨울에도 얼음 깨고 낚싯대를 드리운 寒江獨釣, 홀로 讀書三昧에 빠지거나 벗들과 담소를 곁들인 詩會, 書畵鑑賞 등이 그것이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차 그림 가운데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것은 간송미술관에 간직된 李上佐(1485-1549이후)의 〈群賢煮茗〉이다. 이 그림은 작품 제목이 시사하듯 동자가 차를 준비함이 아닌 차 화로를 중심으로 여러 인물이 둘러앉은 品茶 장면이다. 조선 중기에는 李慶胤(1545-1611) 등 문인화가 그림 속에 주인공 곁에 小童이 차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인다.

후기에 이르러 차가 등장하는 그림들이 많아지니 이것은 차 마시는 습속의 유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의 그림 신선[畵仙] 金弘道(1745-1806이후)는 이 주제 그림을 여러 점 남기고 있어 그가 茶人이란 짐작마저 들게 한다. 고사인물화 같은 畵本風만이 아닌 실제 조선 복식의 인물들이 등장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平生圖〉나 〈群賢〉 같은 풍속화 범주의 그림에 차를 준비하는 인물이 보여 주목된다.

조선 후기 화단에 있어 남종문인화를 조선의 선비 그림으로 國風化에 기여한 沈師正(1707-1769)은 호암미술관 소장으로 화첩에 속한 指頭畵인 〈松下飮茶〉 등 차가 등장한 그림은 단지 몇 점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도판의 〈松下問月〉은 금년 가을 우리 옛 그림의 寶庫인 간송미술관의 '玄齋大展'(10.17-10.31)을 통해 비로소 알려진 그의 흔치 아니한 차 관계 그림인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노송 한 그루와 그 아래 편한 자세로 滿月을 응시하는 주인공과 차를 준비하는 동자 등 비교적 느슨한 구성이다. 화첩에 속했던 한 폭으로 화면 중앙에서 왼쪽 상단으로 조금 치우쳐 빈 공간에 등장한 다소 생경한 박쥐 한 마리에 시선이 가게 된다. 아울러 그림 속 주인공이 달을 보는 것인지 박쥐를 응시함인지 분명하지 않아 머뭇거리게 한다. 그러고 보니 주인공 또한 평범하지 않은 모습의 奇人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박쥐의 화신인 張果로 보기도 한다.

沈師正 〈松下問月〉(간송미술관 소장, 紙本淡彩 32.5×26.5cm)

흔히 觀念山水 혹은 定型山水는 중국풍으로 간주되는데 사실은 이 분야 그림에 있어서도 우리 그림의 특징은 잘 드러난다. 비교적 단조로운 화면 구성에 형태 묘사 또한 과장이나 꾸밈이 적으니 이 점이 중국 그림과 구별되는 점이다. 우리 옛 그림의 특징으로 여유 있는 공간 처리, 수묵담채의 맑고 밝은 색채 감각, 그리고 奇異함의 배제 등을 들게 되는데 비록 道釋人物畵 범주에 드는 그림이나 〈송하문월〉은 이 모든 요소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2004년 겨울 문턱, 빛고을에서 漱巖

그 영원한 微笑

유 건 집 | 회원

국립중앙박물관이 다난했던 경복궁 시대를 마감하는 많은 기념행사 중에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국보 78호와 83호가 오랜 세월을 달리한 채 같은 방에서 만난다는 기대였다.

개관 다음날 혼자서 지하전시실에 들어서니 사방이 어둑한 가운데 쌍무지개가 뜬 듯이 금빛 찬란한 身光을 발산하며 앉으신 두 불상, 바로 華林園의 龍華樹 아래 같은 蓮華世界를 펼치고 있었다. 앞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쳐다볼 뿐, 숨소리마저 크게 낼 수 없는 고요가 온 몸을 누르는 속에서도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다. 눈을 감으니 멀리서 奉德寺 神鐘이 울려 퍼지고 수많은 중생들이 龍華三會에서 다소곳이 합장하며 彌勒經을 암송하는 지난 장면들이 그 어둠 속에 어리비치었다.

보기에도 찬란한 日月冠에 天衣의 소매가 나부끼듯 올라가고 蓮華臺座 마저 天上으로 떠오르는 78호 부처님은 곧은 자세, 오똑한 콧날, 거침없이 뻗은 옷주름 속에 웅혼한 騎馬民族의 정신이 서렸다. 그리고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면 금방 킥킥거리고 웃을 것 같은 천진스런 稚氣가 담긴 미소를 띠고 있다.

그 옆에 煩惱를 벗어던지듯 法衣를 벗고 긴 허리 드러낸 채 蓮花寶冠을 쓰고 三昧의 경지에 든 83호 불상에서는 잔잔하고 포근함이 피어난다. 거기엔 飛天의 뜻도, 靈山의 說法도, 아름다운 天樂도 없고 다만 寂滅의 세계만이 있었다.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微動하지 않을 듯한 초월적 경지다.

지금 내 마음을 이토록 포근히 감싸주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찬란한 광채나 보관에서가 아니고 大慈大悲한 영원의 미소에서였다. 눈을 뜬 듯 감은 듯 아래를 바라보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웃음은 내 눈을 씻고 마음을 정화시켜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방향을 설정하기 힘든 不可思議한 모나리자의 미소도 아니고, 불멸의 母性과 처녀의 순수성을 자랑하는 비너스의 미소도 아닌, 오로지 萬象을 청정의 세계로 녹아들게 하고 보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주는 저 끝 모르는 웃음 앞에 그저 경탄할 뿐이다. 그토록 사랑하던 이가 매몰차게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도 변함없이 사랑스런 눈길을 주는 웃음. 온 인생을 바치며 공들여 키운 자식이 병든 자신을 버리고 돌아설 때도 오직 사랑스런 눈길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다.

신라의 웃음 백제의 웃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 다소곳하고 티 없는 그러면서도 간절하고 포근함이 함께하는 우리의 웃음이다. 비바람 몰아치는 속에서도 淨土를 만들고 고통과 번뇌의 연옥 속에서도 極樂을 이루는 웃음이다. 웃음에 무슨 국경이 있겠는가.

모든 예술품은 다 작가의 마음의 所産이요 영혼의 거울이다. 인생도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거늘 하물며 자신이 만든 예술 작품에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저런 天上의 미소를 창출했을까. 아니 아름답다는 표현으로는 모자라는 無念無想의 경지에서 깨달은 예술혼이 만든 웃음이리라. 온갖 사랑과 미움, 시기와 질투, 희망과 실망의 번뇌를 펄펄 끓는 도가니 속에 이글거리는 화염으로 녹여서 태워 버리고, 그리고 남아 있는 순수한 것만 부어서 이루어 낸 깨달음의 미소다.

가만히 이 불후의 명작을 남긴 두 작가를 상상해 본다. 78호를 빚은 匠人은 앳되고 청순한 신달다의 얼굴에 불타듯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탄력 있는 근육에 부끄럼 잘 타는 해맑은 표정의 사나이일 것이다. 또 그 옆에 앉아 있는 83호를 만든 工匠은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우고 말없이 상대를 응시하는 화랑의 얼굴에 해탈의 마음을 몸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작업에 들기 전에 몇 달 몇 날을 목욕재계하고 부처님 앞에 가부좌를 맺고 앉아 머리에 떠오르는 相好나 자세며 手印을 그려 보았으리라. 처음 며칠은 수많은 상념들이 어지럽게 오가고 지난날의 오욕들이 뒤범벅이 되다가 어느 순간 明鏡처럼 맑은 心眼에 비쳐진 像이 바로 여기 앉은 사유상으로 顯現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이 불멸의 걸작을 향해 會心의 미소를 머금고 고요히 합장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면 부처의 세계라고 했던가. 그리고 살아 있는 인간이 어찌 그 많은 욕망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영원히 벗지 못할 衆生의 業報다. 그러니 바라는 바는 이렇게 자비로운 웃음 앞에서 먼지 낀 거울을 깨끗이 닦아내고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은혜로운 기회로만 삼아도 또한 보람된 일이 아니겠는가.

도솔천에서 娑婆로 다시 나와야 하는 내 마음에 그 영원한 미소 길이 남기를 빌 뿐이다.

유물 기증, 그 후

6엽 연화문 수막새
(충주 탑평리 출토)

경복궁의 하늘은 늘 기와로부터 시작된다. 기와를 보면 그날의 날씨를 점칠 수 있다. 청아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잔뜩 우울한 빛일 때도 있다. 맵시는 또 얼마나 단아한지. 가지런히 얹힌 기와 이랑을 보고 있노라면, 머리 곱게 빗은 여염집 부인의 매무새처럼 날렵하고 매끄럽다. 어느 시인의, '손으로 쓰윽 문지르면 /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하늘'은 기와의 떠받침이 있어 가능하다는 생각도 든다.

"기와만큼 제작 시기의 예술적 특성이 잘 반영된 유물은 없을 겁니다. 문양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의 종교와 생활상은 물론이고, 미의식의 척도며 사상과 철학까지 녹아 있습니다. 시대를 측정하는 잣대 노릇을 한다고 할 수 있지요. 거기다 기와는 출토지와 제작지 모두 장소 이동이 쉽지 않아 다른 어떤 유물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 주지요."

2002년 1800여점의 와전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유창종 변호사의 기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 과년한 딸을 최고 가문으로 시집보내,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하다는 감상을 토로한지 2년, 그는 여전하다. 아니, 오히려 기와 사랑에 더 빠져 있다는 말이 정확한지도 모른다. 작년, 오랜 공직 생활을 벗어나 변호사로 자리 이동을 하면서 시간 관리가 자유로와졌기 때문이다.

"요즘은 주로 해외 와전을 수집하는데 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기와가 제 수집품 리스트에 올라 있지요. 지난 주에는 중국을 다녀왔고, 일본에서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다만 지난 번 기증 유물 특별전을 하고 나서는 너무 소문이 나서…. 한번도 검사라고 알린 적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흥정에 어려움은 겪고 있는 셈이지요."

유변호사의 유물 사랑은 사뭇 애틋하기도 하다. 기증 유물 중 제일 애정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도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충주 탑평리에서 발견된 '6엽 연화문 수막새'가 그 주인공이다. 어느 책에선가 그가 올린 연서이다. '처마에 달렸던 물건이라기엔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공예품이 아닐 수 없다. 웅건하면서도 고귀한 맛이 있고, 거친 듯 하면서도 부드러워 보이며, 광활하면서도 빈틈이 없고, 함부로 만든 것 같아 살펴보면 흠 잡을 곳이 없다.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듯 생기 있는 자태가 어느 조각품 보다 우아하

고 의연하다.' 누가 소박한 수막새 하나에 이런 찬사를 쏟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그토록 아끼는 수막새마저 박물관에 기증해 버렸다. 한 점쯤 남길 걸 그랬다고 마음으로만 그리워 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앓이를 안 지인 한 분이 며칠전에 자신의 소장품을 되돌려 주겠노라 전갈을 보냈더란다. 유물 수집은 그런 열정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증 이전의 수집이 시대적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거나, 미적 가치에 중점을 둔 와전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역사적 가치 여부에 더 큰 잣대를 들이댄다고 한다. 기와 사랑이 깊어지면서 세상을 통찰하는 안목이 넓어진 탓이기도 하다. 유변호사는 문양 하나로 동아시아 3000여년 역사의 문화 교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고구려의 와당은 낙랑과 북조의 영향을 받았고, 백제는 남조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는 언뜻 백제의 문양을 닮은 듯하지만, 특유의 고졸한 아름다움이 있지요. 일본의 법륭사나 비조사에서 출토된 와당은 백제나 신라의 문양과 정말 흡사합니다. 누구나 한눈에 유추가 가능한 정도이지요. 흔히 일본문화의 특색을 모방이라고 하는데, 그 낌새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국가간의 교류 경로를 파악할 수도, 한편으로는 문화적 특색을 비교 연구할 수도 있으니, 시대를 연구하는데 더 좋은 자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와당을 활용해 역사 편년표를 작성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과 액수의 와전을 기증하고 회한은 없었을까? 사설박물관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번도 생기지 않은 것일까? 국립중앙박물관에 최초로 와전실이 생긴 것은 1987년 일본인 아우찌씨의 기와유물 기증 덕분이다. 그때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회상한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박물관에서는 유창종 기증유물전시실이 따로 마련된다. 그는 드디어 박물관 한 켠의 주권 회복을 성취한 셈이다. 보관과 분류, 그리고 전시까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 예성동호회나 가족, 지인들의 후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 사회 환원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한다.

"이왕 널린 공간으로 내 놓은 유물인 만큼 학자들이 정말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 와전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집과 기증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본 오사까의 동양도자박물관을 보면서 한 생각입니다만, 이런 특화된 와전박물관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은 제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활발한 연구와 정부의 관심, 여러 사람들의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유변호사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새 모양의 베트남 기와 한 점이 있다. 용과 대적한 전설의 새 '가루다' 라고도 하지만, 형체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애초에 모형이 없는 새이니 만큼 상상의 여지는 넓다. 치미처럼 웅혼한 기상이 엿보인다. 멀리 보고 넓게 아우를 줄 아는 그의 선행은 큰 새의 날개짓을 닮아 있다. 그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면 좋겠다. 선한 인연의 고리로 이어지는. 그는 기와가 있어 행복하다고 하고 우리는 그의 기증으로 보는 즐거움을 만끽한다. 기와 끝으로 올려다본 경복궁의 하늘은, 오늘 눈부시게 푸르다. 河

洛陽에서 鄭州까지

安 富 | 회 원

西安을 떠난 기차가 渭南, 華山을 지나 河南省으로 들어서자 황하의 본류가 숨바꼭질을 하듯이 동쪽으로 유유히 흘렀다. 洛陽은 과거 열세 왕조의 수도로 고대 중국의 심장부였고 隨나라와 唐나라 시대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국제도시였으며 현재도 150만이 살고 있는 古都의 하나이다. 그래서 주변에 선사시대 夏로부터 宋代까지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도 龍門石窟은 돈황의 막고굴, 대동의 운강석굴과 함께 중국의 3대 석굴로 494년 北魏 효문제 때부터 송대까지 약400년 간 조성된 대형 석각예술 박물관이다. 이 석굴은 洛陽 남쪽 伊河변의 용문산과 그 맞은편 香山의 1km 석회암에 2,345개의 窟龕을 파서 10만여 좌의 부처를 造像하고 2,800개의 碑刻題記와 40여 座의 불탑이 석각되어 있다. 이 석굴들은 북위 때 30%, 당대에 60%, 그 외 나라가 10%를 석각하여 불교예술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아울러 그 당시의 종교, 미술, 건축, 서법 ,음악, 복식 등을 반영하고 있다. 禹王이 治水를 했다는 伊水가 흐르는 이 곳은 일명 伊闕이라고도 하며 산허리를 깎아 물이 흐르도록 해서 龍門이라 부르기도 한다.

석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역시 奉先寺다. 굴 중앙에 정좌한 大盧舍那佛은 중국 불교예술의 최고걸작품으로 규모에 있어서도 최대이다. 불상은 앉은키가 17.14m, 머리높이는 4m, 귀의 길이는 1.9m로 자상하면서 위엄이 있고 지혜로운 미녀 모습을 하고 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노사나불은 당나라 고종의 아내인 측천무후를 모델로 하였다 한다.

노사나불은 온갖 덕을 구비하여 法界를 비추어 모든 악을 제거하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 대불도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가느다란 눈썹이 초승달 같고 가을물처럼 맑은 눈에는 지혜의 광채가 숨겨져 있다. 온몸에 걸친 法衣는 소박하고 세련된 내재적인 미를 이루어서 부처와 인간이 공존하는 종교적 신비감이 넘친다. 主尊佛의 왼쪽에는 제자 迦葉이 侍立하고 오른쪽엔 阿難이 연화대 위에 서 있다. 또 그 양 옆으로 文殊와 普賢菩薩, 天王像과 力士像이 모두 10 여m의 장신에 넘치는 英

氣로서 보는 이들을 위압하듯 버티고 서 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불상들이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고, 대불 뒤에는 사찰을 건립할 때 목재를 꽂았던 네모난 구멍들이 뚜렷이 나 있다.

봉선사에서 얼마 내려오다 중턱에 新羅房이라 각인된 석실이 있다. 석실 안의 불상들은 자취도 없고 텅 빈 안을 들여다보며 바다 건너 이역만리에 와서 佛心을 이루려고 구슬땀 흘리며 정과 망치를 들고 고행했을 스님들을 그려보았다. 석굴 거의 끝 쪽에 路洞을 지나 다리를 건너면 蓮花洞에서 멀지 않는 곳에 숨은 듯 보이는 香山寺가 황색 기와를 머리에 이고 붉은 담장 위로 수줍은 듯 얼굴을 내밀고 서 있다. 이곳이 바로 白居易가 "낙양의 사방이 산수가 아름다우나 용문이 제일이고 용문의 十寺 중에도 향산이 으뜸이다"라고 극찬하며 自號하여 香山居士라 한 곳이다.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건축의 양식이 우아하여 李白을 위시한 역대 문인 逸士들이 탐방해서 수많은 시문들을 남겼다. 한편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긴 역사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이 용문석굴의 파괴가 잔인하리만큼 극심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고구려 유적에 수많은 자금과 인력을 들이고 있으니 이런 당착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洛陽 북쪽 4km정도의 외곽에 낮은 황토 언덕이 있으니 이곳이 邙山 또는 北邙山이다. 당시의 영웅호걸과 절세가인들은 죽어서 북망산에 묻혔다지만 이 곳은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경사도가 낮은 평야의 언덕이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 안산, 배산임수의 형국을 따지는 명당이란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높고 낮은 옛 무덤의 봉분은 찾아 볼 수 없고 그 대신 북위의 선무제 경능과 그 옆의 고묘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낙양고묘박물관은 한나라부터 송대까지의 古墓 25座를 박물관 지하에 원형대로 복원하여 고대중국의 장묘문화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묘의 주인공은 제왕과 귀족, 大商人으로 그들의 경제력에 따라 묘의 규모와 부장품 수준이 다르며 지상의 부귀를 무덤으로 옮겨 死後까지 榮華를 연장하려는 듯했다. 그들은 내세에 대한 미련으로 종교를 만들고 신을 믿어 그 무한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처럼 幽宅을 마련했다. 생시에 보던 낙양을 한 눈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 이승과의 질긴 미련에 대한 욕망이 황량한 들판에 자욱히 남았다.

북망산 위에 즐비한 무덤들 北邙山上列墳塋
오랜 세월을 낙양만 바라보고 있다네 萬古千秋對洛城
성안에는 저녁되면 음악소리 종건마는 城中日夕歌鐘起
북망산 위에는 솔바람소리 뿐이라네 山上惟聞松柏聲

이 얼마나 아이러니칼한 현상인가. 삶이 다 이런 것이거늘 오늘도 우리는 명당을 찾으며 선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으니 異國의 나그네 마음이 처연할 따름이다.

노을 속에 단아히 섰던 白馬寺의 濟雲塔, 사암으로 이루어져 망실의 속도가 빠르다는 鞏縣의 석굴, 중국 무술의 본원지인 숭산 少林寺와 現 方丈의 탑신에 비행기와 노트북 컴퓨터까지 조각해 놓은 塔林을 뒤로하고 杜陵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 북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景福宮과의 因緣

김 현 미 | 특설강좌 수강생

지금까지 서울에 살면서 자의든 타의든 경복궁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난 입시와 주입식 교육의 틀에 얽매여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을 겨우 살아내고 있던 평범한 여고생이었다. 정확히 몇 학년 때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생대회를 계기로 경복궁과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 같다.

경복궁에 학생들 모두를 풀어놓고 몇 시간 안에 詩든 그림이든 각자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과제이다. 몇몇은 제법 진지하게 과제를 수행하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사생대회는 큰 의미없는 형식적인 행사일 뿐이었다. 그저 궁의 이곳 저곳을 몰려다니며 사람이 없고 외진 곳을 찾아 여학생들 특유의 수다로 자유의 시간을 만끽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 때의 경복궁은 나에게 아무 인상도 남겨 주지 못하는 그저 고리타분한 모습의 古建築物일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복궁을 다시 찾았다. 궁은 그 때나 지금이나 웨딩촬영 장소로 꽤 인기가 있는 편이다. 이름 모를 전각의 처마 밑이나 돌계단, 잘 자란 나무 옆에서 어색한 포즈를 취하며 촬영을 했다. 그 때 나는 경복궁을 보긴 봤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는 구도로 앵글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진 찍기에 멋진 장소만을 찾아 헤매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그 후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경복궁을 새로 알게 되었고 또 그만큼 보게 되었다. 그간 박물관 특설강좌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눈 뜨게 된 문화재와 역사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이제서야 경복궁과 나는 정식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歲歲萬年 큰 복을 누리라는 궁의 이름과는 달리 수많은 시련과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경복궁을 보면 우리 역사의 축소판을 보는 것만 같다.

비록 조선 초기 짧은 기간 사용되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 대원군이 복원하기까기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궁이었으나 조선이 가장 힘있던 태평 시절에 정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거의 모든 부분이 소실되어 지금은 앙상하게 상처 입은 모습이지만 그 속을 거닐면서 조선 초 활기차던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여전히 즐겁다.

국가의 중대한 대사가 있을 때 사용되던 근정전과 잘 생긴 박석이 깔린 위엄 있는 조정, 늦은 밤 세종이 집현전 학자를 찾기 위해 거닐었을 길들과 그 길가의 나무들, 어린 손자 단종을 걱정하며 바라봤을 인왕산의 한결같은 모습, 즐거움과 정정함을 누리라는 축원을 담고 있는 慈慶殿 뒷마당의 아름다운 十長生 굴뚝, 그 굴뚝을 내려다 보았을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들의 모습, 또한 그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분주히 살아갔을 수많은 사람들…

이제 나에게 경복궁은 지난 왕조의 건축물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경복궁을 지으며 꿈 꾸었을 유교적 이상사회와 그 속에 살면서 펼치고자 했던 꿈들을 새삼 되새겨 보게 된다.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현재에 맞게 복원해 내는가는 우리들의 과제일 것이다. 경복궁도 그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다. 冠岳山과 勤政殿의 일직선상에 놓였던 광화문이 일제의 의도로 남산을 향해 삐딱하게 놓여 있다. 이를 바로잡고 옛 궁의 10분의 1정도 밖에 남겨지지 않은 모습을 복원하는 일도 시급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와 문화재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일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박물관 특설강좌에 다니면서 경복궁 앞을 지나게 된다. 그 곳에는 늘 단체관람 온 학생들이 눈이 띈다. 그 때마다 생각한다. 내가 경복궁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무의미함이 이 학생들에게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앞으로의 세대들은 첫 만남부터 경복궁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기를…

세 번째 만남은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던 글도 있다. 하지만 나는 세 번째 만남부터 경복궁과 진정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제 살면서 종종 경복궁의 안부가 궁금해질 것이고 가끔씩은 시간을 내서 찾아 가기도 할 것이다. 보고 싶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언제나 나를 반겨줄 귀한 친구를 하나 얻은 기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0월 17일 경복궁 시대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녕 경복궁" 행사를 마련하였다. 1972년 덕수궁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이래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며 흠뻑 정이 들었다. 그래서 이전을 바라보는 눈길이 차마 가벼울 수가 없다. 박물관 종사자는 물론이고 유물과의 설레는 만남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경복궁 내에서도 세 번이나 이사를 했으니 그에 얽힌 이야기도 만만치 않다. 단순히 시원섭섭하다며 넘기기엔 아쉬운 이별, 일년 뒤의 용산 시대에 미리 바치는 애정까지, 그들의 살가운 눈길을 따라가 보았다. 河

용산에서 다시 만나요.

김홍식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유물 포장 담당)

>>.. 보통은 박물관의 전시물에만 관심을 두지만, 많은 숨은 손길이 필요하지요. ICOM대회에서 유물 포장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게 기억에 남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들의 칭찬과 애정 어린 질문이 그간의 힘든 과정을 잊게 했습니다. 1년간의 박물관 폐관은 세심하고도 복잡한 유물 이전 과정도 한 이유가 됩니다.

변혜민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정리 직원)

>>.. 교통도 주위 경관도 좋아서인지 사무실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일은 생각처럼 고상하지 않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먼 수장고 길을 오가야 하는 힘든 육체노동이었지요. 그래도 경복궁이 있어서 박물관과 상호 보완 작용을 했는데……

배기동 (한양대 박물관장)

>>.. 본격적인 박물관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박물관은 우선 규모면에서도 역사적인 개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선도적인 역할 변화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실있는 소프트웨어로 속을 가득 채우는 작업 말입니다.

유상옥 (한국박물관회장)

>>.. 한 세대가 마감하는 느낌입니다. 발전하지만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최순우 전 관장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박물관에 이처럼 질긴 애정을 가지게 만든 분이지요. 많은 일을 의욕적으로 하셨지요. 박물관에 성인교육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도 그 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

>>.. 감회가 남다르지요. 사회생활의 첫 발을 이곳에서 내딛었는데, 세 번의 이사에 모두 동참한데다, 30년간이나 재직하다가 용산으로의 이전을 지휘하는 관장이 되었으니…. 섭섭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척박한 환경에서 좋은 곳으로 옮긴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준구 (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 학예연구관)

>>.. 박물관이 옛 중앙청 건물로 이전할 때가 떠오르네요. 춘궁리 철불을 옮겨야 하는데, 처음부터 박물관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문이 너무 작은 거예요. 벽을 깨부수고야 겨우 불상을 안으로 모셔올 수 있었지요. 박물관 이전 기사를 보면서 드디어 제대로 된 곳에 정착한다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이재영 (회원, 전시실 봉사자)

>>.. 업그레이드 된 박물관이니까 걸맞은 전시실 안내가 병행되어야 겠지요. 1년간의 휴식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북악산의 맑은 공기와 유난히 푸른 하늘, 무엇보다 박물관 옆의 은행나무가 그리울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고 봉사를 하는 제 곁에는 늘 저 나무가 있었거든요. 수많은 얘기를 나눈 친구 같은 존재이지요.

전상진 (회원, 유물정리 봉사자)

>>.. 저희들은 미리 용산으로 가 유물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오랜만에 경복궁 뜰을 거니니 친정으로 돌아온 기분이네요. 박물관 연구강좌에 다니다가 유물정리를 처음 해 보았지요. 고고학자가 된 듯한 그 기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손길이 닿아 복원된 토기가 전시실에 놓였을 때 정말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지건길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 임기 중에 이전을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엇갈렸지만 솔직히 착잡했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아지는 셈이지만... 안착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많은 유물들, 정말 다시는 옮기는 일 없는 마지막 이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하효길 (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

>>.. 돌아보면 낭만과 추억이 서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근길에 보는 정경이 참 아름답거든요. 언젠가 달밤, 잔디밭에서 마신 한 잔의 맥주도 잊을 수가 없지요. 이사 가는 새 박물관에서는 유물 연구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었으니 체계적인 연구물이 쏟아지겠지요.

허동화(전, 한국박물관협회장)

>>.. 도약의 계기라고 생각하고 아쉬움을 잊는 거지요. 외형적인 발전을 희망의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입니다. 자주 찾아와서 애정어린 눈길과 조언을 주어야겠지요. 저는 박물관 종사자들이 명예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이들을 더 분발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공주 옥룡동 고분출토 개오지 장식품

윤 태 영 |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백제 웅진기는 고구려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이후, 538년 사비로 천도하기 이전의 시기이다. 비록 6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쟁패배 충격에서 벗어나 기울어진 국력을 회복하려 갖은 애를 썼다. 그 결과 민심을 추스르고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여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중국 및 일본열도와의 교류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東城王代 이르러 백제는 드디어 중국대륙으로 통하는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였다. 즉 금강하구를 통한 중국 南朝와의 교류였다. 무녕왕릉에서 나온 다양한 중국제 문물도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 외에도 공주지역에는 옥룡동, 단지리, 금학동고분군 등이 있으며, 이들 유적지에서도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개오지 장식품은 중국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획득된 문물로 당시 백제인의 경제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비록 동시대의 것으로 비교할만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지만, 개오지의 민족지적 사용례들을 살핌으로써 본 유물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개오지 장식품은 1962년 공주시 옥룡동 확장개간 사업 중 발견된 고분 1기에서 출토되었다. 총길이가 9cm이고, 폭은 3.5cm인데 개오지만의 길이는 5.5cm이다. 고분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穹窿上天井을 가진 석실분이었다. 이미 도굴을 당한 상태이지만 다행히 단경호 1점, 금동제이식 1쌍, 순금제엽형장식구 8점, 관정, 재갈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개오지는 표면부식이 심하며 일부 결실되기도 하였다.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개오지의 상하 양쪽에 지름 0.3cm정도의 구멍을 뚫은 뒤 길이 6cm정도의 靑銅絲를 관통시켰다. 그리고 관통된 청동사의 양쪽 끝에 지름 0.6cm와 0.4cm인 원판의 座金具 2매를 겹쳐 끼워 넣고, 양끝에 여분으로 남은 청동사를 원형고리모양으로 구부려 개오지표면에 완전히 고정시켰다. 원판모양의 좌금구 표면은 대략 0.1cm간격으로 빗금무늬를 새겨 장식하였다. 원형고리에는 지름 1cm정도의 유환을 부착하고 거기에 또 하나의 고리를 매달아 장식구를 완성하였다. 특히 한쪽 고리의 지름이 2cm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하를 구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주에서 출토된 길이가 5.5cm나 되는 대형급 개오지는 우리나라와 일본 근해에서는 나지 않는 것이다. 비록 표면의 부식이 심해 정확한 종의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열대지방에서 채집되어 장식품으로 가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이 개오지가 남중국해에서 채집된 것이며 중국에서 제작되어 백제지역으로 유입되었으리라 추측한다.

개오지는 언뜻 조개라기보다는 도자기처럼 구워 만든 인조물로 착각할 정도이다. 색채가 다양하고 무늬가 아름우며 유난히 반짝일 뿐만 아니라 그 생김새도 아주 독특하다. 그래서 인류는 오래전부터 개오지를 귀하게 여겨 왔으며 여러 가지 장신구로 사용하거나, 일부 종들은 보석 이상으로 매우 비싸게 거래되기도 한다.

민족지적으로 볼 때 개오지는 피지제도에서는 추장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고, 아프리카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근년까지도 화폐로서 통용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殼口의 생김새가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하여 이 조개를 몸에 지니면 다산과 순산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기원전 15세기부터 개오지를 교역물로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갑골문에 표현된 조개 '貝' 자는 이 개오지의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이다. 개오지는 크기가 작고 일정하여 저장하거나 휴대하기가 용이하며, 훌륭한 장식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주로 남부와 북부사이에 중요한 교역매개체였다. 商나라 때에는 진짜 조개의 대용품으로 청동이나 뼈, 흙으로 만든 모조 조개를 부장품으로 사용하였다. 周나라 초기에도 여전히 개오지는 귀중한 물건이었지만 중기 穆王 이후에는 일상통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오지가 귀중품에서 화폐의 기능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은 대략 그 가공방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조개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부분에 한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줄에 꿰어 휴대하는 방법, 더 큰 구멍을 뚫는 방법, 등의 돌출부를 거의 전부 갈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이 조개의 아름다운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귀중한 물건의 의미를 상실하고, 화폐로 통용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짐작된다. 춘추시대 말이 되면 銅이 조개 대신 通貨로 사용되었지만 개오지는 장식품으로서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세 번째 방법으로 가공된 개오지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도 희소하게나마 출토되었다. 웅기 송평동패총에서 2점, 김해패총에서 1점, 압록강 하류역인 중국 요녕성 여대시 감정자구 후목성역 부근에 있는 강상유적에서 1점 출토되었다. 송평동패총 출토품 가운데 1점은 모조품인데 각구에 2군데의 구멍을 뚫었다. 이 밖에 실크로드 교역로상의 내륙지방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도 개오지의 뒷면을 자른 것이 출토되어 유통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 공주 옥룡동 고분군에서 유일하게 출토된 개오지 장식품이 가지는 의미와 유입 연유는 무엇일까? 백제 웅진기 당시의 중국 상황을 살펴보아야 추정이 가능해진다. 위진남북조시기는 진 · 한제국과 수 · 당제국이라는 두 통일제국 사이에 놓인 분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南朝時期는 왕권이 미약하고 귀족들의 세력이 강하며, 사회 · 경제적으로는 오랜 전란의 영향으로 화폐경제가 무너지고 實物經濟가 활발하였던 시기였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전란의 피해를 덜 입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廣州에서는 南海貿易이 이루어지고, 華北地域의 鄴이나 洛陽에서는 서역과의 교역로가 열려있었다.

이 시기의 유적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하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남방과의 해상교역을 보여주는 것이 貝製品이다. 車渠製貝珠 · 말조개製鎌 · 말조개제 혹은 海産대합제의 化粧用盒 · 진주 등이 알려져 있다. 또 圓形 · 方形 · 花瓶形 · 魚形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소형의 장식과 金, 기타 재질의 장식품이 象嵌材料의 일부로 사용된 것도 많다. 남방과의 해상교역으로 확보된 상품들은 실크로드와 초원의 길 등을 통해 내륙지역에까지 퍼져나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옥룡동 고분군의 개오지 장식품은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나 일본 열도의 인근해역에서 자생하지 않은 대형 개오지라는 점이 그 이유이다.

당시 중국인들은 개오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개오지에 대한 이 당시의 역사기록이나 고고유물은 없지만 錢文陶瓷器를 통해 추측하여 보고자 한다. 이 문양은 東漢에서 六朝時期 동안 長江下流地域 특유의 것이며 금전숭배의 산물이다. 아직 중국에서도 그 기원은 잘 모르나 東漢에서 六朝에 이르는 동안 塼, 瓦, 陶瓷器, 銅器 등에서 錢文 또는 錢文과 조합된 문양이 출현하고 있다. 이 무늬는 錢幣崇拜, 辟邪, 財富象徵과 함께 深味를 추구하던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문도자기는 실제로 사용되던 화폐를 문양으로 채용하였으며 개오지 역시 화폐에서 장식적인 역할로 바뀌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오지장식품은 당시 사람들이 시대적 욕구를 반영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개오지장식품이 백제지역에서 출토된 것은 대중국교류 연구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백제 웅진기는 중국대륙과 일본열도, 신라, 가야 등 다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대상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보인다. 먼저 신라의 경우 발견된 구체적인 고고학적 유물은 없지만, 문헌상으로 결혼동맹을 맺는 등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중국대륙과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고구려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선진 문물을 수용 · 흡수하여 피폐한 백제를 재건하려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또한 백제는 이웃한 가야나 일본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당시 백제의 사정이다. 도읍지인 한성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왕권이 실추되자 국가중흥을 위해 막대한 재정 확보가 급선무였을 것이다. 그래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한 후 왕권강화와 함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무령왕대의 堤防修築과 歸農政策이 對內的인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聖王이 泗沘로 천도할 정도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대외적인 교류를 통한 富의 축적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백제는 부족한 국가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내, 대외를 가리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백제인은 자연스럽게 富를 추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개오지 장식품은 당시 백제인의 부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 부산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 옥룡동고분군에서 출토된 개오지장식품은 정확한 종을 알 수는 없어 서식지역을 모르는 아쉬움이 있지만, 크기로 보아 남중국해안에서 채집 · 가공되어 백제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개오지는 색채가 화려하며 무늬가 아름답고 유난히 반짝일 뿐만 아니라 그 생김새가 아주 독특하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귀중한 물건으로 취급되거나 화폐로 사용되었음을 민족지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교할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도자기의 예를 통해 개오지장식품 역시 벽사나 재부상징물이었을 것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시 백제인의 부에 대한 염원을 담은 증거물로 추정한다.

이 글은 우리회에서 학술연구지원사업으로 발표한 내용을 편집실에서 발췌 · 정리한 것입니다.

2005년도 제29기 박물관 특설강좌

1977년부터 개강하여 28년간 운영된 강좌로써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 및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박물관 특설강좌(일명: 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화요반 – 200명(화요일 수강)
- 목요반 – 200명(목요일 수강)

■ **모집대상**
- 문화예술분야
- 25세 이상 59세 미만의 대학원 강의 수강 가능자로서
  - 고고학 · 미술사 · 민속학 · 역사 등 연구희망자
  - 전통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자
    ※ 박물관 특설강좌 기 수료자는 제외함.

■ **수강기간** : 2005년 3월~12월 (매주 1회, 13:00~16:50)
- 강좌내용 : 역사학 · 고고학 · 인류학 · 미술사 · 회화사 · 도자사 건축사 · 박물관학 · 민속학 · 사상사 · 과학사 전시실 교육 및 현장학습 등 50여 강좌에 150여 시간
- 강의장소 : 옛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 사회교육관 강당

■ **원서교부 및 등록(선착순 모집)**
- 원서접수 및 등록기간 : 2005. 1. 24 (월) ~ 2005. 1. 29 (토)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통 (소정양식, 증명판사진 3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1통
    ※ 서류제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 수강료 : 370,000원 (박물관 회비 및 교재대 포함)

■ **원서교부 및 접수처**
한국박물관회 (옛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 **참고사항**
- 2005년에도 현 교육장소인 옛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 사회교육관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2005년도 박물관 연구강좌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005년도 박물관 연구강좌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내용**
- 대상 : 박물관 연구강좌 및 특설강좌 수료생
- 기간 : 2005년 3월 ~ 12월 (월2회)
- 강좌내용
  - 한 국 사 : 고대·삼국시대
  - 동 양 사 : 중국문화
  - 고 고 인 류 : 비교문화 · 오리엔트 문화
  - 사 상 사 : 유교사상 · 도교사상
  - 불교미술사 : 인도불교미술 · 불교공예
  - 미 술 사 : 도자사
- 강의장소 : 옛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 사회교육관 강당

■ **신청방법**
- 기 간 : 2004. 11. 22(월) ~
- 장 소 : 한국박물관회 (옛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 서 류 : 수강신청서 1통(소정양식), 사진 1매(또는 구 수강증)
- 수강료 : 200,000원 (박물관회비 50,000원 포함)

■ **참고사항**
- 1년 수강 후에는 반을 변경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 2005년에도 현 교육장소인 옛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 사회교육관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문의전화 : (02) 730-7092 · 7093, (02) 723-7093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회장을 거쳐 2002년 11월 俞相玉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兪相玉
副會長 | 李京姬 · 許東華
理　事 | 李健茂 · 金容元 · 金宗圭 · 朴魯壽
朴容允 · 徐載亮 · 李福衡 · 李仁洙
全晟雨 · 鄭良謨 · 池健吉 · 千昞玉
千信一 · 崔永道
監　事 | 權泰宣 · 李起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 · 평생 · 영구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 · 금관 · 은관 · 청자 · 백자회원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 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 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 원, 은관회원 삼천만 원, 청자회원 일천만 원, 백자회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은관회원
兪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청자회원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변호사
玄明官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珏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아름지기 상임이사
田永采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胡鍾一　호성흥업회장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韓奉珠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千信一　세중옛돌박물관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明姬
朴容允　한국박물관회 이사

≫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30__gomuseum@hanmail.net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 · 교육 · 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한다.

■ **연구지원** | 발굴조사, 학술연구 조성비,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는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박물관신문을 지원한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벼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등을 구입 기증했다.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 · 답사를 다녀와서 · 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 · 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 · 실측, 토기편 맞춤,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 · 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 · 원고 수집 정리 · 디자인 작업 · 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 · 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한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 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특별전도록, 영혼의 여정 특별전도록, 서역미술 특별전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한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반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터디그룹을 통합·재편해 운영한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사·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이 책을 만들면서

하늘거리는 등잔불에 살그머니 다가가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愛)

마음속에 등불이 켜지는 순간
밝고 따뜻했지만
없던 그늘이 새로 생겼습니다. (진)

경복궁의 가을 언제나 그렇듯 아름답다.
가을의 색채가 더욱 그 향기를 뿜어내는 것은
떠남에 대한 아쉬움인지.
갈바람에 못이기는체 살며시 떨어지는
노란 은행잎 하나 가만히 들어본다 (리)

봄·여름·가을을 보고 또 보는 것은
겨울을 느끼기 위함이지요 (水)

울긋불긋 물든 낙엽을 떨구며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한그루 나무가
지난 계절을 돌아보게 합니다 (선)

꽃보다 예쁜
은행잎이 떨어진다
음악없이 어찌
이 시간을 견딜까 (河)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8호

발 행 일 | 2004년 11월 15일
발 행 처 | 한국박물관회
발 행 인 | 유상옥
기 획 | 신병찬
편집회원 | 서미선 정미희 정혜리 조애경 진수옥 하영남
진 행 | 이진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57 옛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 내
전 화 : (02) 730-7092~3 · 723-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한국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 **표지그림 이야기**

오른쪽은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등잔과 나무로 된 등잔걸이다. 단순하고 투박하여 장인의 솜씨는 아닌 듯하나 오히려 손맛이 느껴진다. 草家의 작은 방을 아늑하게 밝혔을 것이다. 반면 새 모양의 장식이 아름다운 위 쪽의 등잔은 벽에 걸려서 밤을 환하게 했다.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57 옛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 내
Sejong-no 1-57, Ch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 (02) 730-7092~3 · 723-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